

光日春秋

백홍열



어느덧 세월이 번개처럼 지나, 꿈과 청춘의 상징이었던 하늘의 사나이 빨간마후라가 올해로 60돌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의 하늘에서 피고 진 수많은 애국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 공군이 야크기 100여 대를 보유한 반면, 우리 공군은 정찰기 20대가 전부였다. 이에 애국기 헌납운동을 벌여 모금한 3억5천만 원으로 캐나다로부터 T-6 항공기 10대를 구입, 건국기라 명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6·25전쟁이 터

대한민국 공군 60돌 발자취

지자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던 우리 공군은 정찰기를 총동원 맨손으로 적진을 향해 폭탄과 수류탄을 투하하며 용감하게 싸웠다. 이후 대규모 이전한 우리 공군은 맥아더 원수에게 요청 F-51 전투기 10대를 인수, 바로 출격을 개시하게 된다. 이때 이근석 대령은 안양 상공에서 적 전차를 공격하던 중 피탄 되자 적에게 돌진 장렬히 순화하였다.

한편, 중국의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유일한 수송로였던 대동강 승호리 철교 파괴가 당시 UN군의 가장 중요한 숙제였다. 그러나 막강한 적의 방공포로

500여 회에 걸친 출격에도 이를 파괴하지 못하자, 우리 공군이 이 임무를 맡게 된다. 우리 공군은 미군교리에 따른 급강하 공격으로는 이 철교를 폭파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윤응렬 대위가 이끄는 6기의 F-51 편대가 생명을 내건 초저공비행으로 승호리 철교를 폭파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투혼과 용기로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발전하였다.

6·25 이후 우리 공군은 1955년 F-86 세이버를 도입 제트기 시대를 열었고, 1965년에는 F-5 초음속 전투기를 도입하였으

며, 1969년에는 자주국방 정책에 따라 F-4팬텀 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공격 무기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1986년에는 첨단 F-16 전투기를 도입, 이후 이를 국내에서 생산배치하게 된다. 또 91년에는 육군 방공포병이 전군 항공기, 방공포, 레이더 등 3개 무기체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우리 공군이 명실상부하게 조국의 영공방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T-50 최첨단 전투훈련기를 국내에서 개발 자주공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로써 1천여 명의 인원과 경항공기 20대로 시작한 대한민국 공군은 창군 60년 만에

7만 명의 인원과 800여 대에 이르는 최첨단 항공기를 보유한 세계 8위의 정예 공군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60돌을 맞는 우리 공군은 이제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항공우주군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1세기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미 정찰, 감시, 통신, 위치 추적 등 우주 군작전이 우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타워즈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북미 방공사령부는 우주 궤도의 10cm 이상 모든 물체를 추적하고 있으며, 소수 정예군을 지휘하는 이스라엘은 공군이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도 2007년 위성 요격미사일을 우주에 발사하는 등 우주작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4기의 정찰 위성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대포동 2호 발사를 계기로 탄도탄에 대한 우주 감시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탄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발사조차 조기에 탐지할 수 없다. 우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군의 임무다. '하늘로! 우주로! 미래로!'라는 공군의 구호처럼 대한공군도 이제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경제 살리기는 '지역제품 사주기'부터

광주시가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데 적극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역민들이 소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 명품으로 키워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광주시의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 대상에는 기아자동차, 삼성광주전자, 금호타이어,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6개 대기업의 25개 제품, 연수당, 매일유업, 롯데칠성, 해태제과 등 12개 중소기업의 20개 제품이 포함됐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지자체의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실질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울산이다. 울산의 현대차 점

유율은 무려 90%를 웃돌고 있다.

반면 지역브랜드에 대한 이 지역의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 지역 브랜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기아차 시장 점유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지역브랜드를 둘러싼 제반 환경 역시 열악하다. 유통망 붕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많은 지역 브랜드들이 전국브랜드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욕만 있어선 안 된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상생협력은 물론 유관기관 등에 광주시가 지역제품 구입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그중에서도 지역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은 절대적이다. 시민들 스스로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아끼고 소비하는 애용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제품 사주기 캠페인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엄중경고' 받은 申대법관 결단 내릴 때다

이우훈 대법원장이 13일 '촛불제관 개입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징계위 회부가 아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윤리위가 권고한 수준인 경고 및 유감표명을 하는데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자신사퇴하지 않고 대법관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신 대법관은 엄중경고 조치가 나오자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신 대법관으로서는 '현직 대법관의 자신사퇴'라는 역사적 오명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자신의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와 이 대법원장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재판개입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법원장의 조치가 적절하지 따지기에 앞서, 대법관이 사정 유래없는 '엄중 경고'를 받은 자체 만으로도 직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 더구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 판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장 조치가 나오자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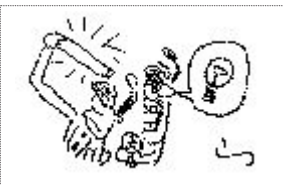
물론 신 대법관으로서는 '현직 대법관의 자신사퇴'라는 역사적 오명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자신의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와 이 대법원장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재판개입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장판사들의 성급한 집단행동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사법부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과 법원 구성원 모두가 진실로 사법부를 위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無等鼓

반도체 발광소자 LED(Light Emitting Diode)는 품의 광원(光源)이다. 무엇보다 광전환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다. 광전환효율이 백열등 5%, 형광등 40%인데 비해 LED는 90%나 된다. 수명은 최대 10만 시간으로 기존 광원을 압도한다.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데다 전력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탁월하다. 녹색성장 산업의 총아로 각광받을 만하다.

LED 빅뱅



그럼에도 모든 조명을 LED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격 때문이다. 아직 백열등의 20배, 형광등의 10배나 된다.

전기요금에 광원 교환비용 등을 합쳐도 기존 조명보다 3배 나 비싸다. 많은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현재의 LED조명은 발열량이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입력하는 전기와 비교한 밝기를 나타내는 발광효율(lm/W)도 아직 형광등에 미치지 못한다.

LED는 하지만 최근 들어 형광등 수준인 100 lm/W 까지 올라왔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격 하락과 시장 수요 확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스위 스폿(Sweet Spot)'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른바 'LED산업의 대폭발(빅뱅)'이다.

빅뱅 가능성은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라이팅 페어(Lighting Fair)'에서도 보여졌다. 지난해보다 30~40%나 가격이 떨어진 LED 조명이 대거 선보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4년 내에 형광등을 대체하는 LED 조명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자칫 LED 빅뱅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LG이

나 비싸다. 많은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현재의 LED조명은 발열량이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입력하는 전기와 비교한 밝기를 나타내는 발광효율(lm/W)도 아직 형광등에 미치지 못한다.

LED는 하지만 최근 들어 형광등 수준인 100 lm/W 까지 올라왔다. 조금만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최상준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출산 연령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35세 넘어 임신한 경우를 고령임산부로 분류하는데 고령임신은 유산이나 다운증후군, 저체중아, 기형아 출산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감, 부부 중심 가족생활을 선호하고 독신 증가와 높은 이혼율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 자신의 일이 가

벽이 되지 못한다. 여성에게서 수태 능력이 감소하는 확실하고 명확한 나이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성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수태 능력이 감소하며 남성도 나이에 따라 생식능력이 감소한다.

고령 여성의 경우 생식능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첫째, 나이가 들면서 난소에서 난자를 배출하는 배란횟수가 감소하고 나이 든 여성의 난자는 젊은 여성의 난자에 비해 수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난관이 막히거나 자궁 내막증과 같은 질병이 일반적으로 나이

기고

박성기



5월은 광주에게 아주 의미 심장한 달이다. 타 지역민들에게는 5월은 가정의 행복과 스승의 자애로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광주 지역민들에게는 29년 전에 울려 퍼졌던 민주화를 위한 함성과 울분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5·18 행사는 한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공식 지정되고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격상되었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광주 지역에 국한된 행사로

향과 연관시켜 집단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지역 민노총은 5·1 근로자의 날 행사를 도청 별관 앞에서 가짐으로써 도청 별관 철거 논쟁을 구심점으로 5·18 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역 노동계를 결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신들의 저하된 세를 만회하고 대정부 의사 표현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5·18 단체들의 현안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자칫 5·18 행사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것은 물론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건립에도 악영향을 줄 뿐이다.

성숙한 5·18을 위하여

치러져 온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5·18 행사의 중심에 서 있는 5·18 관련 단체들의 의견 대립과 지역·노동계 등 진보단체들의 강한 집단적 의사 표시 등이 타 지역민들에게 거부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지역 최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도청 별관을 철거하는 문제를 놓고 문화부와 이를 반대하는 5·18단체들이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어 공사가 차질을 빚는 등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도청 별관 철거를 반대하는 5·18단체들이 지역 진보단체들과 함께 이번 29주년 5·18 기념식을 앞두고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강하게 하려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최소한 5·18 행사 기간에는 조금 서운함이 있더라도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 조소롭게 행사 진행을 함으로써 5·18이 전국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 학원 운동권과 노동계 등이 도청 별관 철거를 자신들의 요구사

최근 박종대 화물연대본부 광주지회장이 자살함으로써 지역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지역 노조 간부의 죽음에 대해 그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정부도 노동계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자살 사건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극심한 비핵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노동계가 5·18 행사에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대정부 항의의 표시를 하려고 한다면 5·18 행사의 파행을 가져와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전국적인 관심 행사로 확산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다.

5·18 기념식은 이미 국가적으로 인정 받은 추모 행사이다. 지역 일부 단체들이 5월만 되면 과격한 대정부 집회를 계획하는 것은 더 이상 5·18 영령들을 기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대다수의 광주 지역민들이 바라듯이 5·18 행사의 성숙화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전남도지회장〉

농촌 탈선 온상 리브호텔 군단위 이하 불허 바람직

얼마 전 고향에 갔다가 그곳 초등학교에서 밖으로 난 창문을 파란 색종이로 붙여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창문 앞으로 리브호텔과 모텔이 뻗어 보여 아이들 교육상 어쩔 수 없이 붙여 놓았다는 것이다.

예전에 농지전용규제의 완화로 우수축산처럼 돌기 시작한 리브호텔(모텔) 붐은 농촌까지 확산하여 요즘은 농촌이든 도시 번두리든 어디서나 리브호텔을 쉽게 볼 수 있다. 호화로운 서구식 유럽풍의 리브호텔이 형성되어 손님을 유혹하고, 요즘에는 아예 1

인1실 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대신료나 숙박료를 투입하면 객실열쇠가 나오는 식의 첨단화까지 되었다.

농촌지역 미성년자들의 탈선마저 부르며, 대낮부터 쾌락을 좇는 사람들의 불분장소로 전락한 모텔들은 더 이상 군 단위 이하에는 짓지 못하도록 농지전용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브호텔같은 정갈 그냥 신고만 해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놔두지 말고 허가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동동

문화전당 공사 서둘러야 총장로 상권 부활

“광주를 알려면 제일 먼저 총장로를 밟아 보라”는 말이 있다. ‘광주의 명동’으로 불리는 총장로는 금남로와 더불어 광주의 핵심을 이루며, 한때 광주의 유행과 패션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총장로는 이러한 명성과 달리 차츰 쇠퇴해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총장로를 찾고 있으나,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상인들이 하나같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요즘 한참 떠들썩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짓는다고 했을 때 내심 좋아했다. 전당

이 들어서면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아질 테고, 그렇다면 총장로 상권이 예전만큼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전당을 짓겠다고 공사를 시작하더니 여태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솔직히 유적지를 보존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일겠지만, 다 부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존하겠다는 데 왜 지리 못하게 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더 크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총장로 상권이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바란다. ▲김영수·광주시 북구 연제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문 회 상 황 부 2200-661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체 부 2200-634	여 련 배 부 2200-669	정 치 부 2200-641	체 육 부 2200-67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